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연주론적 분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부소정

2020년 2월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연주론적 분석 연구

지도교수 허 대 식

부 소 정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부소정의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A Study on the Analysis of for Performing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No. 1
in f minor Op. 120 by Johannes Brahms

Boo, So Jung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Music

201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Hur, Dae-Sik, Prof. of Music

(Name and Signature) _____

Date

Department of Music in Composi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선행 연구 고찰	2
II. 본론	4
1. 19세기 음악	4
2. J. Brahms의 생애 및 음악	5
1) J. Brahms의 생애	5
2) J. Brahms의 음악적 특징	9
3. J. Brahms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작품연구	10
1) J. Brahms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작품 배경	10
2)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11
3)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	29
4) 3악장 Allegretto grazioso	34
5) 4악장 Vivace	42
III. 결론	52
<참고문헌>	53
<ABSTRACT>	55

표 목 차

<표 1> J. Brahms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형식	10
<표 2> 1악장 Allegro Appassionato의 구성	11
<표 3>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의 구성	29
<표 4> 3악장 Allegretto grazioso의 구성	34
<표 5> 4악장 Vivace의 구성	42

악 보 목 차

<악보1>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4, 제시부 제1주제	12
<악보2>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5-11, 제시부	13
<악보3>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2-24, 제시부	14
<악보4>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25-37, 제시부	15
<악보5>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38-52, 제시부 제2주제	16
<악보6>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53-66, 제시부 제3주제	17
<악보7>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68-75, 제시부 경과구	18
<악보8>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77-87, 제시부 소 종결구	19
<악보9>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90-111, 발전부 제1부분	20
<악보10>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12-119, 발전부 제2부분	21
<악보11>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20-128, 발전부 제3부분	22
<악보12>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30-135, 재현부 제1주제	23
<악보13>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53-167, 재현부 제2주제	24
<악보14>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68-182, 재현부 제3주제	25
<악보15>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83-191, 재현부 경과구	26
<악보16>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194-213, 재현부 소 종결구	27
<악보17>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마디 227-236, 재현부 종결구	28
<악보18>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 마디 1-22, 제1부분	30
<악보19>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 마디 23-29, 제2부분	31
<악보20>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 마디 41-52, 제3부분	32
<악보21>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 마디 75-81, 제3부분	33
<악보22>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1-16, A 부분 중 a	35
<악보23>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17-28, A 부분 중 a'	36
<악보24>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29-46, A 부분 중 a''	37
<악보25>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47-62, B 부분 중 b	38

<악보26>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63-78, B 부분 중 b'	39
<악보27>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79-88, B 부분 중 b''	40
<악보28> 3악장 Allegretto grazioso 마디 129-136	41
<악보29> 4악장 Vivace 마디 1-16, A	43
<악보30> 4악장 Vivace 마디 19-38, A	44
<악보31> 4악장 Vivace 마디 42-51, B	45
<악보32> 4악장 Vivace 마디 54-61, B	46
<악보33> 4악장 Vivace 마디 62-68, A'	46
<악보34> 4악장 Vivace 클라리넷 악보 마디 8-17, 76-84 선을 비교	47
<악보35> 4악장 Vivace 마디 119-134, C	47
<악보36> 4악장 Vivace 마디 142-154, B	48
<악보37> 4악장 Vivace 마디 158-173, B	49
<악보38> 4악장 Vivace 마디 174-181, A''	50
<악보39> 4악장 Vivace 마디 207-220, 종결부	51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연구론적 분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 악 학 과
부 소 정

본 논문의 목적은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의 분석과 연주 기법을 연구하여 클라리넷 연주자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욱 효과적인 연주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19세기 음악은 전통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전주의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 반면에 브람스는 고전형식을 지키고자 했으며, 발전적 변주(Entwickelnde Variation)¹⁾ 기법의 사용으로 곡의 통일감을 조성했다. 화성적인 면에서는, 독일 민속 음악의 영향으로 3도 간격의 진행이 많이 나타나고, 3도와 6도의 병진행, 분산화음, 반음계적 진행을 자주 사용했다. 리듬적인 면에서는, 싱커페이션이나 헤미올라(Hemiola)²⁾ 등의 사용으로 박자를 불분명하게 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1번은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악장 Allegro appassionato는 제시부에 3개의 주제가 나타나는 변형된 소나타형식이다.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는 서정적인 주제 선율이 32분음표의 장식적인 리듬과 함께 나타나며, 세도막 형식이다. 3악장 Allegretto grazioso에서는, 주선율이 클라리넷에서 먼저 연주되고, 두 마디 뒤에 피아노에서 선율이 모방 되어 나타나는

1) 발전적 변주(Entwickelnde Variation) : 브람스는 의도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요소들을 '동기'(Motive) 적으로 작품의 앞부분에 나타냄으로 뒤에서 나오는 테마들과 이어지고, 각각의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관되도록 하였다. 브람스의 이런 모티브는 학자들에 따라 '원초 모티브'(Urmotiv) 또는 '모토 모티브'(Mottomotiv)라고 불린다. 훗날 쇤베르크에 의해 '발전적 변주'로 명명된다.

2) 헤미올라(Hemiola) : 그리스어로 '1과 1/2'을 뜻하는 'hemiolios'에서 유래된 라틴어이다. 기본 박인 3박형이 2박형으로 바뀌는 리듬이다.

캐논 형식이 사용된다. 그리고 피아노에서 엷 박의 옥타브 리듬 진행이 특징이며, 간주곡 형식이다. 4악장 Vivace는 론도 형식으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이 곡은 형식과 작곡기법에서 고전적인 형식을 사용하며, 서정적인 선율의 사용으로 낭만주의 음악 어법이 나타난다. 또한, 대위법적 응답형식이 뛰어나 피아노와 클라리넷이 서로 대등하게 연주된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영향력 있는 중산층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산업화로 인쇄술과 기술이 발달하며 악기가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여가시간에 실내악 연주를 하거나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도시에는 오페라극장, 연주회장, 음악교육기관, 합창단 등이 설립되었다. 이 시대의 음악은 고전적인 형식과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각과 자유로운 감정을 추구하는 주관적인 음악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표제음악³⁾, 극음악⁴⁾, 교향시⁵⁾ 같은 다양한 음악 장르가 생겨났다.

주관적인 음악을 추구했던 진보주의 작곡가에는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⁶⁾,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⁷⁾와 루이 엑토르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⁸⁾ 등이 있다.

그와 반대로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전형식을 기반으로 곡을 작곡하였으며, 절대음악⁹⁾을 고수하여 협주곡, 실내악, 교향곡 등 전통 장르의 곡들을 주로 작곡하였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발전적 변주 기법으로 곡의 통일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당김음과 헤미올라 등의 리듬으로 박자를 복잡하게 하였다. 화성에서는 3도 간격의 진행을 강조하거나 3도와

-
- 3) 표제음악(programme music) : 주제음악. 어떤 관념이나 사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곡명으로 표제를 붙인 음악이다.
 - 4) 극음악(dramatic music) : 일반적으로 극장풍의 연주형식을 가진 음악 또는 극적인 내용을 담은 음악을 일컫는다.
 - 5) 교향시(Symphonic poem) : 표제음악의 일종이며, 시적(詩的) 또는 회화적인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관현악 작품이다.
 - 6)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 독일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다. 문학과 음악, 춤, 무대 장치 등이 하나가 된 종합 예술 '악극(Music drama)'을 최초로 만들었다.
 - 7)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 작곡가이자 피아노연주자이다.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헝가리 작곡가이다.
 - 8) 루이 엑토르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 : '표제음악'이라는 관현악곡 양식을 창시한 프랑스 작곡가이다.
 - 9) 절대음악 : 제목이 없고 이야기가 없으며, 음의 순수한 예술성만을 목표로 작곡된 음악이다.

6도의 병진행과 분산화음, 반음계적 진행을 자주 사용하였다.

클라리넷 연주자들에게 많이 연주되는 곡 중 하나인 브람스의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은 전통적인 고전형식 틀 안에서 서정적인 선율을 통해 낭만주의 음악 어법이 나타난다. 브람스 실내악 작품에서 핵심적 작곡기법인 발전적 변주 기법이 사용되고, 당김음, 헤미올라 리듬을 통해 박자를 모호하게 한다. 대위법적 응답형식이 뛰어나 피아노와 클라리넷이 서로 대등하게 연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곡의 고전성과 화성진행, 대위법적인 음악 형식, 연주기법을 연구, 분석하여,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브람스 음악을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19세기의 음악과 브람스의 생애, 브람스 음악의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의 악장별 악곡 분석을 통해 조성, 리듬, 선율, 대위법적 음악형식 등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한다. 또한, 연주기법을 심도 있게 연주하겠다.

3. 선행 연구 고찰

본 논문을 주제로 한 논문에는 브람스의 음악분석과 곡의 악장별 분석을 한 연구, 19세기 시대적 배경과 낭만시대의 문학, 미술, 음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연구, 부분적 연주 기법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송은희¹⁰⁾, 허정민¹¹⁾은 브람스의 생애와 작품 경향, 음악, 곡의 악장별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류예린¹²⁾은 19세기 시대적 배경과 낭만시대의 문학, 미술, 음악, 브람스의 실내악

10) 송은희,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op.120, No.1에 관한 연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 허정민, “Johannes Brahms의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Op.120 No.1 에 관한 연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 류예린,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Op.120, No.1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작품과 작곡기법 연구를 더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김성은¹³⁾은 19세기 시대적 배경 및 음악 양식의 특징, 브람스의 생애와 곡의 분석과 마지막으로 악장마다 부분적으로 연주기법을 연구하였다.

13) 김성은,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in F Minor Op.120, No.1에 관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II. 본 론

1. 19세기 음악

18세기는 귀족이나 왕의 후원을 받는 ‘궁정 음악가’라는 지위가 음악가로서 가장 높은 위치였지만 궁중에서 개최되는 연주회는 제한적이고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 사회는 잦은 전쟁으로 귀족들이 부를 상실하였다. 산업혁명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며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대량생산과 분배에 기초한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영향력 있는 중산층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연주회나 연주단체 후원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가까운 친지, 귀족들과 함께 집에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하여 살롱음악회를 열기도 하였다.

산업화로 인쇄술이 발달하였고 기술도 발달하며 악기가 정교해졌고, 튜바, 색소폰 등의 악기도 새롭게 생겨났다. 시민들은 실내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합창단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가벼운 음악들이 작곡되고 출판되었다.

이 시대의 곡은 보통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에 모이는 사람들, 또는 사적인 살롱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같은 대규모적인 작품과 독창가곡, 피아노 소품 같은 매우 짧은 작품이 작곡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작곡되면서 음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때 진보파와 보수파가 생겨났다. 진보주의였던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순수음악인 기악곡을 비난하였고 음악극을 새로운 장르로 발전시켰다. 반면 브람스는 고전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신고전주의의 보수파였으며, 표제음악이 널리 쓰이던 이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그는 오직 절대음악만을 고집하였다.

이처럼 표제음악이 유행하여 교향시와 가곡 같은 새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며, 기악작품에서는 현악 4중주에 피아노가 포함된 실내악 작품들이 생겨났다.

2. Johannes Brahms의 생애 및 음악

1) J. Brahms의 생애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독일 북부 항구도시인 함부르크(Hamburg)에서 1833년 5월 7일에 태어났다. 아버지 요한 야코프 브람스(Johann Jakob Brahms, 1806~1872)는 더블베이스 연주자였으며, 어머니 크리스티아네 니센(Johanna Henrika Christiane Nissen, 1789~1865)은 아버지보다 17세가 더 많았다.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신앙심이 깊고 매우 신중한 성격의 여인이었다.

브람스는 아버지에게 기초적인 음악교육을 먼저 받은 이후, 피아노를 오토 프리드리히 빌리발트 코셀(Otto Friedrich Willibald Cossel, 1813~1865)¹⁴⁾에게 수업받았다. 오토 코셀은 브람스의 음악적 재능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고, 자신의 선생님인 에드워드 마르크스젠(Eduard Marxsen, 1806~1887)¹⁵⁾과 연결해주었다. 브람스는 마르크스젠에게 음악 이론과 피아노를 배웠으며,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등 독일 옛 거장들의 음악과 초기음악 형식을 세밀하게 익히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젠의 가르침으로 인해 브람스는 옛 음악을 소중히 다루게 되었다.

1848년 15살에 최초로 독주회를 열어 피아노 연주자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해인 1849년에는 두 번째 독주회에서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함으로써 작곡가로서의 모습도 나타냈다.

1853년 브람스는 당시 바이올린 연주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레메니(Eduard Reményi, 1828~1898)¹⁶⁾의 반주자 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레메니와 독일의 여러 지방으로 순회연주 여행을 떠나게 된다.

14) 오토 프리드리히 빌리발트 코셀 (Otto Friedrich Willibald Cossel, 1813~1865) :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다.

15) 에드워드 마르크스젠(Eduard Marxsen, 1806~1887) : 함부르크의 교외의 알토나(Altona)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다. 1843년부터 1848년 브람스에게 피아노와 작곡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다.

16) 에드워드 레메니(Eduard Reményi, 1828~1898) :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 빅토리아 여왕의 독주 바이올리니스트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 1853년 5월 2일 독일의 ‘체레(Celle)’라는 도시에서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의 음정이 1음 내지 반음이 다르게 조율되어 있었는데, 다시 조율할 시간이 없었던 브람스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조옮김 하면서 레메니와 함께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바이올린 C 단조》(Violin Sonata No. 7 in c minor)를 완벽하게 연주했다. 이 연주는 마침 연주회에 와있던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 1831~1907)¹⁷⁾을 놀라게 하였다.

이후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 요하임의 권유로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과 만나고, 인연을 맺게 되었다. 브람스는 슈만을 만나러 방문했을 당시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Piano Sonata No. 1 in C Major Op. 1)을 연주하였다.¹⁸⁾ 브람스의 연주를 들은 슈만은 브람스의 음악적 재능을 높게 평가하여 ‘새로운 길(Neue Bahnen)’이라는 주제로 <음악 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¹⁹⁾에 그를 칭송하는 글을 썼다.

1854년 신경이 쇠약해진 슈만은 라인강 투신자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브람스는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의 가족들을 보살피 주게 되었다. 그로 인해 클라라 슈만(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음악적 교류를 나누게 된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악기론과 대위법 그리고 변주 기법의 연구에 집중하는 등 자신만의 음악적 방향 탐구에 매진하였다. 1856년 슈만이 죽고 난 후 브람스는 뒤셀도르프를 떠나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가게 된다.

1857년부터 약 3년간은 대부분 함부르크에서 생활하였으며 데트몰트(Detmold) 궁정에서도 잠깐 생활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브람스는 피아니스트이자 실내악 주자이자 궁정 합창단의 지휘자로 근무하며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함께 작업하며 각 악기의 소리와 효과 그리고 편성법에 대해 깊게 공부하게 된다.²⁰⁾

1860년 요아힘, 베른하르트 솔츠(Bernhard Scholz, 1835~1916), 줄리우스 오토

17)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 1831~1907) : 지휘자, 바비올린 연주자, 작곡가이다.

18)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 19. 브람스』 (서울: 음악세계, 2003), 327.

19)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 는 슈만과 몇 사람의 친구 (J.크노로, L.승케, 비크 등)들이 함께 발행한 음악잡지로 이는 낭만주의 음악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20) 김용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라단조 Op.15)의 작품 탄생에 관하여”, 『음악과 민족』 4 (1992), pp.182~183.

그림(Julius Otto Grimm, 1827~1903)과 함께 <신(新) 독일 악파²¹⁾>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여 또 한 번 주목받았다. 브람스의 고전주의 전통에 입각한 음악 세계관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던 신독일 악파는 베를리오즈, 바그너 그리고 리스트를 선두로 한 진보주의 예술가들의 집단이었다. 그들은 음악이란 모름지기 ‘표제’를 지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철학을 성립시켜주는 음악 양식으로 ‘교향시(Symphonic poem)’를 주장했다.

이들은 절대음악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각, 감정 등을 음악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의 음악에 대한 생각들은 교향시나 표제음악에 잘 나타나고 있다.

1863년 6월에는 빈에 있는 징아카데미(Singakademie)의 지휘자로 초빙되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관객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1864년 4월까지 지휘자 직책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1865년 1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브람스는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 Op.45)을 작곡하였고, 이후 빈에서 초연된 후 대성공을 거두며 작곡가로서 이름을 한층 더 알리게 된다.

그 후 1869년에는 레메니와의 순회연주 여행에서 수집한 헝가리 음악들을 편집하여 《헝가리 무곡》(Hungarian Danes)을 발표하였다.

1872년 2월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실의에 빠진 브람스는 이로 인해 빈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음악 생활에 몰두하게 된다. 같은 해 9월 브람스는 빈 음악협회(Wiener Musikverein)²²⁾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며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직접 지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음악 활동 중에서도 브람스는 창작 활동에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56 a와 b》(Variations on a Theme by Joseph Haydn Op.56a, Op.56b), 《피아노 4중주곡 3번 c단조》(Piano Quartet No.3 in c minor Op.60) 등을 작곡하며 작곡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브람스는 자신의 창작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1875년 4월 18일에 빈 음악가협회의 회장직을 사임하게 된다.

그 후 브람스는 작곡 활동에 몰두하며 약 20여년에 걸쳐 작곡한 《교향곡 제1번》

21) 신독일악파 : 스스로를 음악적 진보세력이라 칭하며 고전파를 계승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악파로써 브람스, 요하임, 한슬릭 등과 대립 세력을 형성하였다.

22) 빈 음악협회(Wiener Musikverein) : 181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된 고전 음악 관계자 단체이다.

(Symphony No.1 in C minor Op.68)(1876)을 발표하였다.

1877년 9월 한스 폰 뷔로우(Hans von Bülow, 1830~1894)²³⁾는 브람스의 연주를 듣고, 이후 그의 추종자가 되어 3B(J.S. Bach, L.v. Beethoven, J. Brahms)라는 용어를 만들고, 브람스를 작곡가로서 명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해인 1877년에는 《교향곡 제2번》(Symphony No.2 in D Major Op.73)을 작곡하였다. 6년 뒤 《교향곡 제3번》(Symphony No.3 in F Major Op.90), 이후 2년 뒤에 《교향곡 제4번》(Symphony No.4 in e minor Op.98)을 완성하였다.

1890년 말년의 시기로 접어들며 친구들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자신의 영감이 쇠퇴하고 창작력이 감퇴된 것을 느끼고 작곡 생활을 중단한다. 그러나 1891년 마이닝엔(Meiningen)을 방문한 브람스는 마이닝엔 궁정악단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리하르트 뮐펠트(Richard Mühlfeld, 1856~1907)²⁴⁾가 연주하는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악기의 음색과 표현력에 매료되어 《클라리넷 3중주》(Clarinet Trio in A minor Op.114)와 《클라리넷 5중주》(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를 작곡하게 된다. 이어서 1894년 《클라리넷 소나타 1번》(Clarinet Sonata No.1 in F minor Op.120), 《클라리넷 소나타 2번》(Clarinet Sonata No.2 in E flat Major Op.120)을 작곡하여 총 4곡의 클라리넷 실내악 작품을 남겼다.

1896년 브람스는 자신과 클라라의 건강악화로 인해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5월 20일에 클라라 슈만은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브람스는 간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하였으며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오르간곡 《11곡의 오르간을 위한 코랄 전주곡》(11 Chorle Preludes, Op.122)를 작곡하였다. 11곡의 주제는 모두 ‘죽음’ 이었는데, 11곡의 오르간을 위한 코랄 전주곡 중 11번째 곡인, “오, 세상이여, 나는 너를 작별해야만 한다.”(O, Wdlt, Ich muss dich lassen)를 마지막 작품으로 1897년 4월 3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23) 한스 폰 뷔로우(Hans Guido Freiherr von Bülow, 1830~1894) : 독일의 지휘자이자 피아노 연주자.

24) 리하르트 뮐펠트(Richard Mühlfeld, 1856~1907) : 마이닝엔 궁정 관현악단에서 수석 클라리넷 연주자이다.

2) J. Brahms의 음악적 특징

브람스는 바흐의 다성음악과 베토벤의 고전적 형식기법을 계승하였으며 변주곡 형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변주에서 동기를 발전, 확대해서 곡 전반적으로 계속 출현하여 통일감을 가지는 기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²⁵⁾는 이 기법을 “발전적 변주”(developing variation) 라고 불렀다.

리듬적 특징으로는, 싱코페이션(Syncopation)²⁶⁾과 2박과 3박이 섞여 있는 헤미올라(Hemiola) 등을 자주 사용하였다. 박자를 수평적으로 모호하게 하고, 세로줄을 없애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같은 요소와 함께 화성을 통해 선율을 강조하며 고전적인 음악 성향에 낭만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또한, 독일 민속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던 브람스는 그 영향으로 3도 간격의 진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3도의 사용은 정적인 선율에 서정성을 부여해주었고, 3도와 6도의 병진행과 빈번한 분산화음, 감7화음 그리고 반음계적 진행을 자주 이용함으로써 풍부한 음향적 효과에 도움을 주었다.

브람스는 소나타부터 피아노 3중주, 피아노 5중주, 현악 6중주에 이르는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을 24곡을 작곡했다. 그는 1865년에 작곡한 호른 3중주(Op. 40-바이올린, 호른, 피아노)와 같은 독특한 악기 구성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음색의 조화를 연구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이 작품을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구성으로 바꾸거나 클라리넷 소나타를 비올라가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다.

‘신독일 악파’로부터 ‘브람스의 음악은 오래된 낡은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평을 듣게 된 브람스는 이전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절판하거나 수년에 걸쳐 수정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이처럼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음악을 발전시켰다.

25)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 : 오스트리아 작곡가이다. 제자들과 함께 신빈악파 혹은, 제2차 빈악파를 형성하였다. 특히 12음 음악이라는 새로운 기법의 음악을 창조하여 20세기 예술 음악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6) 싱코페이션(Syncopation) : 당김음이라고도 한다. 한 마디 안에서 썸여림이 위치가 바뀌는 리듬이다.

3. J. Brahms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작품연구

1) J. Brahms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작품 배경

브람스는 말년의 시기에 자신의 영감이 감퇴된 것을 느끼고 작곡 생활을 중단하였는데, 1891년 마이닝엔에서 뮐펠트의 클라리넷 연주를 듣고 감명받아 클라리넷 작품을 작곡하였다.

《클라리넷 소나타 1번》은 1895년 마이닝엔 누이동생 저택에서 브람스 자신의 피아노와 뮐펠트의 클라리넷으로 초연되었다. 브람스는 소나타 두 곡의 악보를 모두 뮐펠트에게 주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의 연주권도 그에게 독점시켰으며 1895년 Simrock 출판사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다.

이 곡의 각 악장별 조성과 빠르기, 박자, 형식, 총 마디 수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J. Brahms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형식

	조성	빠르기	박자	형식	총 마디수
1악장	f minor	Allegro appassionato	3/4	소나타 형식	236마디
2악장	A b Major	Andante un poco Adagio	2/4	세도막 형식	81마디
3악장	A b Major	Allegretto grazioso	3/4	간주곡	136마디
4악장	F Major	Vivace	2/2	론도 형식	220마디

2) 1악장 Allegro appassionato

f minor로 시작하는 제1악장은 3/4박자의 곡으로 총 236마디로 구성되며 빠르고 열정적으로(Allegro appassionato)의 소나타형식(Sonata Form)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시부에 3개의 주제가 나타나는 변형된 소나타형식이다.

소나타형식은 고전주의 시대 또는 19세기의 교향곡, 실내악, 독주 소나타 등의 첫 악장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중간의 느린 악장이나 마지막 악장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1악장의 형식, 구조, 마디, 조성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1악장 Allegro appassionato의 구성

형식	구조	마디	조성
제시부(1~89)	제1주제	1-4	f minor
	주제반복 확보	5-37	f minor
	제2주제	38-52	D b Major
	제3주제	53-68	c minor
	경과구	68-76	c minor
	소 종결구	77-89	c minor
발전부(90~129)	제1부분	90-111	A b Major
	제2부분	112-119	c minor
	제3부분	120-129	f # -c # -f # minor
재현부(130~236)	제1주제	130-152	f # -f minor
	제2주제	153-167	B b Major
	제3주제	168-182	f minor
	경과구	183-191	f minor
	소 종결구	192-213	f # -f minor
	종결구	214-236	f minor

위의 표와 같이 1악장에서 나타나는 소나타형식은 기본 소나타형식에서 변화를 준 소나타형식으로 소나타 주제가 2개가 아닌 3개가 나타나고 발전부에서도 3개의 주제가 변화, 발전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1악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 제시부

① 제1주제 (1-4마디)

<악보1> 마디 1-4, 제1주제

Allegro appassionato

Klarinette in B

Pianoforte

poco f

동형진행, 3octave unison

1악장의 주제리듬 제시

곡의 시작은 피아노에서 포코 포르테(poco f)²⁷⁾로 3옥타브(octave)의 유니즌(unison)으로 제1주제가 연주되고 이 선율은 주제 간의 연결구 또는 각 부분의 연결구에 쓰인다.

2마디에서 1악장의 주제 리듬이 나타난다. <악보 1 참조>

²⁷⁾포코 포르테(poco forte/poco f) : 조금씩 세게.

<악보2> 마디 5-11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5 to 11. The top staff is for Clarinet and the bottom for Piano. Measure 7 in the Clarinet part is circled and labeled '1주제 주제리듬'. Dynamics include 'poco f' and 'p'.

클라리넷은 음악의 강세가 첫 박에 나타나며, 피아노는 오른손에서 둘째 박에 음악의 강세를 두어 오른손의 화음을 강조하고 왼손에서는 상행하는 아르페지오 (arpeggio)가 반복된다. 7마디 클라리넷에서 제1주제 주요리듬이 나타난다.

클라리넷이 *f*로 시작할 때 부드러운 텅잉(Tonguing)²⁸을 사용하여 첫 음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연주하며, 8마디 도에서 미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하여 도에서 약간의 크레센도를 하여 미음을 최대한 부드럽고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도록 연주한다. <악보 2 참조>

28) 텅잉(Tonguing) : 관악기를 연주할 때 혀끝으로 소리를 끊는 것을 말한다.

<악보 3> 마디 12-2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2 to 17.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8 to 24.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prominent rhythmic pattern in the left hand, often with a triplet feel. The clarinet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some slurs and accents. Dynamics are marked as *f* (forte) and *pp* (pianissimo). A chromatic progression is noted at the bottom of the second system: 반음계적 진행 F E Eb D D# C.

피아노 왼손 선율이 도약과 리듬을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12마디부터 14마디의 리듬이 15마디에서 18마디까지 축약되어 나타나고, 21마디부터 24마디까지 피아노 왼손에서는 반음계적 진행이 나타난다. 21마디에서 피아노의 3박 리듬 위에 클라리넷 2박 리듬이 나타나며, 이는 브람스의 특징적인 헤미올라 리듬이다. 클라리넷은 13마디 *f*로 첫 음을 연주할 때, 텅잉을 너무 강하지 않게 연주하여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17마디와 18마디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8분음표 첫 음을 약간 테누토(tenuto)²⁹⁾ 하여 빨라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23마디 B \flat 음과 24마디 A \flat 음은 높아지기 쉬운 음정이므로, 음정에 주의하여 연주한다. <악보 3 참조>

29) 테누토(tenuto) : 음의 길이를 충분히 연주하라는 말.

<악보 4> 마디 25-37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5-37. It consists of a clarinet line (top staff) and a piano accompaniment (middle and bottom staves). The piano part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f* and *sf*, and articulation marks 'a' and 'b'. A harmonic analysis box at the bottom indicates 'N6 Db : IV6' and 'V'.

제1주제의 변화와 확대는 피아노에서 a와 b의 음형이 계속 나타나며 클라리넷 선율에서 음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피아노 33마디 첫 박에서 f minor의 버금팔림음 B \flat 위의 단 6도가 되는 G \flat 음으로 인해 네아폴리탄 6화음(N 6)³⁰이 나타난다. 그러나, 33마디에 G \flat 음으로 인해 D \flat Major의 IV 6 화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33마디부터 D \flat Major로 전조 된다. 클라리넷은 f로 시작하고, 26마디와 28마디 첫 음에 테누토를 하여 리듬이 빨라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28마디부터 30마디, 33마디부터 35마디까지 셋잇단음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프레이즈(phrase)의 연결을 위해서 한 호흡으로 연주한다.

<악보 4 참조>

30) 네아폴리탄 6화음(Neapolitan sixth) : 단조에서 IV(버금팔림음) 위로 단6도를 가리키며, 이 음정을 가지는 6화음을 N 6 이라고 일컫는다.

②제2주제 (38-52마디)

<악보 5> 마디 38-52, 제2주제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8 to 45. The vocal line starts at measure 38 with a rest, then begins at measure 40.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at measure 38 with a rest, then begins at measure 40. The piano part ha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quarter notes in the left hand. Dynamics include *p* (piano) and *pp* (pianissimo). A box labeled '엇박' (off-beat) is placed over the first measure of the piano part.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6 to 52.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a *dolce* marking.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pp* and *dim.* markings.

*p*로 시작하는 제2주제는 피아노의 오른손과 왼손이 엇 박으로 나타나며, 2분음표의 연속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하행하는 선율의 연속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0마디 *p*로 시작하는 클라리넷은 다음 마디의 E 음정이 튀지 않도록 부드러운 텅잉을 사용해서 상행하는 선율을 부드럽게 연결한다. <악보 5 참조>

③ 제3주제 (53-68마디)

<악보 6> 마디 53-66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53-66.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53-57)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and a clarinet part with a treble clef. The piano part has markings for *p* (piano) and *ma ben marc.* (meno bene marcato). The clarinet part has a marking for *p*. The second system (measures 58-62)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and a clarinet part with a treble clef. The piano part has markings for *f* (forte) and *sf* (sforzando). The clarinet part has markings for *f* and *sf*. The third system (measures 63-66)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and a clarinet part with a treble clef. The piano part has markings for *f* and *sf*. The clarinet part has markings for *f* and *sf*.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53마디부터 여리게 그러나 악센트를 충분하게 연주하며, 리듬적인 특징이 클라리넷과 피아노에서 계속 반복, 변형되어 나타난다.

53마디에서 16분십표 뒤에 나오는 16분음표를 짧게 텅잉하여 특징적인 리듬을 잘 살려서 연주한다. 62마디부터 클라리넷에서 나타나는 16분음표, 5잇단음표, 7잇단음표, 6잇단음표는 모든 음이 고르게 들리도록 연주한다. <악보 6 참조>

④ 경과구 (68-76마디)

<악보 7> 마디 68-7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68 to 71.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72 to 76. The clarinet part (top staff)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downward slur across measures 69-71 and 72-75. The piano part (bottom staff) features a rhythmic accompaniment with a downward slur across measures 68-71 and 72-75. Dynamics include *f*, *fp*, and *dim.*

피아노에서 지속적인 16분음표 진행이 나타나며 클라리넷 선율과 피아노의 오른손 상성부는 하향하는 선율이 나타나고 피아노의 왼손은 상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72마디의 데크레센도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69마디부터 클라리넷의 하행하는 선율이 *f*에서 작아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72마디의 두 번째 박자부터 8분음표 두음이 데크레센도로 나타나는데, 앞 음을 길게 연주하고 작아지면서 데크레센도의 효과를 돋보이게 한다. <악보 7 참조>

⑤ 소 종결구 (77-89마디)

<악보 8> 마디 77-87, 소 종결구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77 to 82.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83 to 87. The top staff is for the clarinet,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piano part starts with a forte (*f*) dynamic and a *legato* marking. The clarinet part has a crescendo (*cresc.*)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measure 82. The piano part features a *sf* (sforzando) dynamic in measure 85.

클라리넷 선율이 먼저 하행하고 이어서 피아노 선율도 하행한다. 클라리넷이 고음에서 하행하는데, 고음에서의 텅잉이 강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첫 음을 부드러운 텅잉과 테누토를 하여 첫 음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연주한다. <악보 8 참조>

(2) 발전부

① 제1부분 (90-111마디)

<악보 9 > 마디 90-111, 발전부 제1부분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90-97)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melodic line and a clarinet part with a similar line. Annotations include 'p' (piano), 'pp' (pianissimo), and 'espress.' (espressivo). A box labeled '<대위법적 구조>' (counterpoint structure) highlights specific intervals. The second system (measures 98-104) shows a key change to 'Ab Major' and includes dynamics like 'dolce' and 'pp sempre'. A circled note is labeled '이명동음' (enharmonic equivalent) with 'Ab' and 'G#' below it. The third system (measures 105-111) changes to 'E Major : I' and continues the melodic development.

Ab Major의 제1부분에서는 제시부의 제1주제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발전한다. 피아노의 왼손 저음부와 클라리넷에서 선율이 대위법적 구조로 주고받으며 이어진다. 100마디에서는 Ab 과 G# 음을 이용하여 이명동음으로 Ab Major에서 E Major로 조바꿈을 한다.

클라리넷에서 92마디에서 p와 두 마디 뒤에 나타나는 pp 섬여림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연주한다. <악보 9 참조>

② 제2부분 (112-119마디)

<악보 10> 마디 112-119, 발전부 제2부분

선율적인 특징보다는 리듬적인 특징이 강조된 부분이 있다. 116마디에서 피아노 왼손은 한 박자 단위의 옥타브 음이 연주되고, 피아노 오른손과 클라리넷은 당김음 리듬으로 생동감을 준다.

클라리넷은 8분음표를 연주하는데, 프레이즈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음 줄이 시작되는 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텅잉한다. <악보 10 참조>

③ 제3부분 (120-128마디)

<악보 11> 120-128, 발전부 제3부분

제시부 제3주제 특징적인 리듬의 변화와 확대가 나타나고 바로 재현부로 이어진다.

클라리넷은 *f*로 마르카토(marcato)³¹⁾하게 연주한다. 점8분침표 뒤에 나타나는 16분음표를 최대한 짧게 텅잉하여 리듬을 잘 살려서 연주한다. <악보 11 참조>

31) 마르카토(marcato/marc.): 이탈리아어로 ‘강조된, 푹푹하게’의 뜻이다. 음을 명확하게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음악 용어이다.

(3) 재현부

① 제1주제 (129-152마디)

<악보 12> 마디 130-135

일반적으로 재현부에서 주제가 재현될 때 제시부의 주제와 조성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곡에서는 제시부에서 f minor로 시작하는 4마디가 재현부에서는 f# minor로 재현된다.

134마디 클라리넷에 나타나는 스포르찬도(sforzando)³²⁾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세계 불어넣어 그 음을 강하게 연주한다. <악보12 참조>

32) 스포르찬도(sforzando/sf) : 그음을 강하게.

② 제2주제 (153-167마디)

<악보 13> 마디 153-167, 재현부 제2주제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53 to 159.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60 to 167.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B-flat major, indicated by a box labeled 'Bb Major'. The score includes various dynamic markings: 'dolce' in the piano part, 'p dolce' for the clarinet, and 'dim.' and 'pp' for the piano part. The clarinet part begins at measure 155 and ends at measure 167.

재현부의 제2주제는 Bb Major 조성이다.

155마디부터 클라리넷은 p로 부드럽게 연주한다. 158마디부터 159마디까지 크레센도와 이어서 나타나는 데크레센도의 셈여림을 지켜서 연주한다. 161마디에서 데크레센도가 끝나고 두 번째 박자에 나타나는 고음 레가 너무 튀지 않도록 연주한다. <악보 13 참조>

③ 제3주제 (168-182마디)

<악보 14> 마디 168-182, 재현부 제3주제

대부분 제시부의 제3주제와 같은 리듬이 나타난다.

제시부의 제3주제와 다른 점은 p에서 f로 소리가 점점 커지는 셈여림의 변화와 클라리넷보다 피아노가 4마디 앞서 주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172마디 클라리넷은 p이지만 그음을 강조하며 연주한다. 16분침표 뒤에 16분음표를 스타카토 하여 리듬을 잘 살려서 연주한다. 6잇단음표 첫 음에 테누토를 하여 모든 음이 고르게 연주한다. <악보 14 참조>

④ 경과구 (183-191마디)

<악보 15> 마디 183-191, 재현부 경과구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83 to 186.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87 to 191. The top staff is for the Clarinet,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ties, and dynamic markings like *f* and *p*.

제시부의 경과구와 리듬, 선율의 진행이 거의 같다. <악보 7 참조>

클라리넷 파트와 피아노 오른손은 하행하는 선율이고, 피아노 왼손은 상행하는 선율이다. 클라리넷은 하행하는 선율이지만 *f* 셈여림이 작아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8분음표 두 개의 데크레센도 효과를 위해 첫 8분음표를 길게 연주한다. <악보 15 참조>

⑤ 소 종결구 (192-213마디)

<악보 16> 마디 194-213, 재현부 소 종결구

Piano의 지속적인 아르페지오 화성진행

마디 5에 나타났던 선율

페달포인트 효과인 F음

전반부는 제시부의 소 종결구와 같고, 피아노의 지속적인 아르페지오 화성진행과 페달 포인트³³⁾ 지속음이 나타난다. 209마디부터 피아노와 클라리넷에서 대위법식 응답 방식이 나타난다.

클라리넷에서 194마디부터 202마디까지 하행하는 선율이 작아지지 않도록 *f*를 유지하며 연주한다. 206마디에 5마디에 나타났던 선율이 *p*로 한 옥타브 아래에서 짧게 나타난다. <악보 16 참조>

33) 페달 포인트(Pedal Point) : 보통 최저음에 배치된 긴 지속음을 일컫는다.

⑥ 종결부 (214-236마디)

<악보 17> 마디 227-236

The musical score shows measures 227 to 236. The piano part features a Picardy third at the end, indicated by a box labeled 'Picardi 3rd 피카르디 3도'.

피아노와 클라리넷에서 제1주제 선율이 나타난다. 마지막 4마디에서 f minor의 으뜸화음 중 3음인 라에서 제자리가 붙으면서 장3화음이 되어 피카르디 3도³⁴⁾로 1악장을 끝맺는다. <악보 17 참조>

34) 피카르디 3도(Picardy third) : 단조곡 마지막 종지 부분에 으뜸화음 중 3음이 단3화음이 아닌 장3화음으로 끝나는 것을 뜻한다.

3)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

A b Major로 시작하는 제2악장은 2/4박자의 곡으로 총 81마디로 구성되며 걷는 속도로 조금 느리게(Andante un poco Adagio)의 세도막 형식³⁵⁾이다.

2악장의 형식, 구조, 마디, 조성은 <표3>와 같다.

<표3> 2악장 Andante un poco Adagio의 구성

형식	구조	마디	조성
제 1부분	a	1-12	A b Major
	a'	13-22	A b Major
제 2부분	b	23-40	D b -C-A Major-c minor
제 3부분	a	41-48	c minor
	a'	49-60	f minor
	a''	61-81	A b Major

35) 세도막 형식 : 3개(A-B-A)의 주요부분으로 된 형식으로 음악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식이다.

(1) 제1부분(1-22마디)

① a와 a'

<악보 18> 마디 1-22, 제1부분

서정적인 클라리넷 주제선율과 32분음표의 장식적인 리듬이 나타난다.
32분음표의 첫 음을 테누토해서 리듬이 빨라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악보 18 참조>

(2) 제2부분(22-40마디)

① b

<악보 19> 마디 23-29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3 to 26. The piano part (bottom staff) features a rhythmic accompaniment of sixteenth notes, starting with a *p dolce* dynamic in measure 23 and moving to *mp* in measure 25. The clarinet part (top staff) has melodic phrases in measures 24 and 26, with dynamics *p* and *mp* respectively. Chord changes are indicated as Db Major (measures 23-24) and Cb Major (measures 25-26).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7 to 29. The piano part continues with sixteenth-note accompaniment, marked *p* throughout. The clarinet part has a melodic line in measure 29, also marked *p*. Chord changes are indicated as A Major (measures 27-28) and C# minor (measures 29).

제2부분은 D \flat Major를 시작으로 C \flat Major, A Major 마지막에 c# minor로 전조 된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리듬이 특징적이다.

피아노의 화려하지만 부드러운 p로 연주되는 16분음표 반주에 클라리넷은 선율의 리듬을 잘 살려서 연주한다. <악보19 참조>

(3) 제 3부분 (41-81마디)

① a, a', a''

<악보 20> 마디 41-5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41-52. It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41-44)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melody marked 'p' and 'dim.', and a clarinet part with a melody marked 'p espress.' and 'dim.'. The second system (measures 45-48) shows the piano part with a melody marked 'piu p' and 'dim.', and the clarinet part with a melody marked 'p' and 'dim.'. The third system (measures 49-52) features a piano part with a melody marked 'p espress.' and 'dolce', and a clarinet part with a melody marked 'p' and 'dolce'.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slurs, and dynamic markings.

[a]에서는 p로 피아노에서 주제선율이 나타나고, [a']에서는 클라리넷에서 주제선율이 한 옥타브 아래로 연주된다.

느린 악장이기 때문에, 클라리넷에서 32분음표를 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연주한다.

<악보20 참조>

<악보 21> 마디 75-81

75마디부터 81마디까지 피아노 저음에서 A \flat 음이 페달 포인트로 계속 나타난다. 클라리넷에서는 주제선율이 pp로 나타나고 점점 작아지며 조용한 분위기로 끝이 난다. <악보 21 참조>

4) 3악장 Allegretto grazioso

A b Major로 시작하는 3악장은 3/4박자의 곡으로 총 136마디로 구성되며 빠르기는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Allegretto grazioso)이며 인터메쑈(Intermezzo)³⁶⁾ 3부 구조이다.

3악장의 형식, 구조, 마디, 조성은 <표4>와 같다.

<표4> 3악장 Allegretto grazioso의 구성

형식	구조	마디	조성
A	a	1-16	A b Major
	a'	17-28	A b Major
	a''	29-46	A b Major
B	b	47-62	A b Major
	b'	63-78	A b Major-f minor
	b''	79-88	f minor
A'	a	89-106	A b Major
	a'	106-118	A b Major
	a''	119-136	A b Major

36) 인터메쑈(Intermezzo) :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기악곡. 오페라의 주요 소재가 그리스 신화였던 17, 18세기에 세리아 형식의 짧은 희극 오페라가 막간을 통해 공연되었는데, 이를 인터메쑈라고 불렀다. 인터메쑈는 이후 희극 오페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극적 흐름을 도와주는 기악곡을 간주곡으로 부르게 되었다.

(1) A (1-46마디)

① a

<악보 22> 마디 1-16, A부분 중 a

3악장은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Allegretto grazioso)로 시작된다.

a부분(1마디-16마디)에서 처음 8마디는 클라리넷에서, 9마디부터 16마디까지는 피아노에서 p로 선율이 교차 되어 나타난다.

2악장과 다르게 밝은 분위기로 연주하며, 점 4분음표 뒤에 나오는 8분음표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한다. 클라리넷은 16마디 마지막 음이 f에서 스타카토로 나타나기 때문에, 15마디와 16마디 첫 음에 나오는 악센트를 너무 강하지 않게 연주한다.

<악보 22 참조>

② a'

<악보 23> 마디 17-28, A부분 중 a'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7 to 22. The top staff is for the clarinet,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Measure 17 has a circled repeat sign.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3 to 28. The piano part enters at measure 23. Dynamics like *sf* and *f* are used. The score ends at measure 28.

a' 부분(17마디-28마디)은 캐논(Canon)형식으로 주선율이 클라리넷에서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두 마디 뒤에 피아노에서 선율이 모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도돌이표를 하여 다시 반복한다. 클라리넷은 셈여림과 악상기호를 잘 살려서 밝은 분위기를 잃지 않도록 연주한다. <악보 23 참조>

③ a''

<악보 24> 마디 29-46, A부분 중 a''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29-34) shows the clarinet part with a melodic line and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steady eighth-note pattern. The second system (measures 35-40) continues the melodic development in the clarinet. The third system (measures 41-46) concludes the section with a final cadence in the clarinet and a fortissimo (f) dynamic in the piano accompaniment.

a''부분(29마디-46마디)에서는 주선율이 피아노에서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클라리넷에서 나타난다. 연속되는 8분음표들이 빨라지지 않도록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한다.

29마디 피아노에서 주선율이 나타날 때 클라리넷은 p로 반주하듯이 연주한다. 33마디 그라치오소 에 돌치시모 셴프레(grazioso e dolcissimo sempre)³⁷⁾로 연주한다. 38마디에서 마지막 8분음표를 약간 테누토 하여 39, 40마디를 짧은 카덴자 느낌으로 연주한다. <악보 24 참조>

37) 그라치오소 에 돌치시모 셴프레(grazioso e dolcissimo sempre) : 우아하게 그리고 계속 부드럽게.

(2) B (47-88마디)

① b

<악보 25> 마디 47-62, B부분 중 b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47-62. The top system covers measures 47-54, and the bottom system covers measures 55-62. The score is written for voice and piano.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vocal line (treble clef)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circled note in measure 47 and another circled note in measure 55. The piano accompaniment (grand staff) includes a right-hand part with a circled note in measure 47 and another circled note in measure 55, and a left-hand part.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p* (piano), *molto dolce*, and *dim.* (diminuendo). Chord boxes for A6 and G3 are present. Measure number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and 62 are indicated above the staves.

b 부분(47마디-62마디)에서는 피아노 오른손에서 엇 박의 옥타브 진행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선율이 A6에서 G3로 하행하고 있다. 피아노 왼손과 오른손이 3도 병행으로 나타난다.

클라리넷은 고요하게 *p*로 저음을 연주한다. <악보 25 참조>

② b'

<악보 26> 마디 63-78, B부분 중 b'

b' 부분(63마디-78마디)에서는 도돌이표가 특징이고 b에서 나타난 엇 박의 리듬이 줄어들다가 점차 규칙적인 3박의 리듬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클라리넷에서 p로 선율이 시작되며, 67마디와 71마디에 나타나는 린포르찬도(rinforzando)³⁸ 강한 텅잉이 아니라 호흡을 조금 강하게 내뿜으며 음을 조금 길게하여 그음을 특히 세게 연주한다. <악보 26 참조>

38) 린포르찬도(rinforzando/rf.) : 그 음만 아주 세게.

③ b''

<악보 27> 마디 79-88, B부분 중 b''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79 to 83. The top staff is for the clarinet, starting with a melodic line marked 'espress.' and ending with a 'dim.' marking.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bottom two staves, starting with a piano dynamic 'p.' and ending with a 'dim.' marking.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84 to 88. The clarinet part continues with a melodic line.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section marked 'pp' (pianissimo) starting at measure 86. The scor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dots.

b'' 부분(79마디-88마디)에서는 다시 엇 박의 옥타브 리듬 진행을 강조한 부분이다. 클라리넷은 정박자로 나타나며, 점점 작게 연주한다. 프레이즈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음줄 첫 음 텅잉에 주의하여야 한다. <악보 27 참조>

(3) A' (91-138마디)

① a, a', a''

<악보 28> 마디 129-136

마지막 부분 131마디부터 138마디에서 간결하게 나타나는 클라리넷의 짧은 카덴자와 133마디부터 칼란도(calando)³⁹⁾로 희상하는 선율이 나타나며 조용한 분위기로 곡이 끝난다. <악보 28 참조>

39) 칼란도(calando) : 점점 느리고 약하게.

5) 4악장 Vivace

F Major로 시작하는 4악장은 알라 브레베(Alia breve)로 총 220마디로 구성되며, 아주 빠르게(Vivace)의 론도 형식으로 이 곡에서는 A-B-A'-C-B-A''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4악장의 형식구조, 마디, 조성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4악장 Vivace의 구성

형식구조	마디	조성
A	1-41	F Major
B	42-61	C Major
A'	62-118	F Major
C	119-141	d minor
B	142-173	F Major
A''	174-206	F Major
종결부	207-220	F Major

(1) A(주제) (1-41마디)

<악보 29> 마디 1-16

The musical score is titled 'Vivace' and covers measures 1 through 16. It is written for piano and clarinet. The piano part consists of staccato chords, with markings 'a' and 'b' indicating specific chord types. The clarinet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various articulations.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non legato e ben marc.' for the first six measures, 'grazioso' for measures 7-11, and 'leggiero' for measures 10-16. Dynamics are marked as *f* (forte) and *p* (piano).

주제 A 부분은 피아노에서 논 레가토 에 벤 마르카토(non legato e ben marcato)⁴⁰⁾로 a와 b음형이 나타나고, 이 음형들은 주로 연결구에서 사용된다.

클라리넷은 5마디 *f*로, 7마디는 *p*로 썸여림이 대비되게 연주한다. 8마디부터 시작되는 주제선율은 그라지오소(*grazioso*)⁴¹⁾로 우아하게, 10마디부터 나타나는 8분음표 스타카토는 레지에로(*leggiero*)⁴²⁾로 매우 가볍고 짧은 텅잉을 통해 늦어지지 않도록 연주한다. <악보 29 참조>

40) 논 레가토 에 벤 마르카토(non legato e ben marcato) : 스타카토처럼 충분히 강조하여.

41) 그라지오소(*grazioso*) : 우아하게.

42) 레지에로(*leggiero*) : 가볍게.

<악보 30> 마디 19-38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19-24) is in A Major and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The second system (measures 25-31) is in a minor and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The third system (measures 32-38) is in C Major and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p*, *f*, and *dim.* There are also annotations for '주제선율 반복' (Theme melody repeat) and 'N6 F:IV I'.

25마디 피아노 왼손에서 주제 A에 나타나는 음형 a의 리듬이 나타난다. 조성은 A Major- a minor - F Major - C Major로 전조된다.

클라리넷은 23마디부터 24마디까지 데크레센도로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연주하고, 25마디부터 다시 *p*로 주제선율을 연주한다. 27마디까지 *p*로 연주하고, 다음 마디부터 점점 크레센도 하여 29마디에는 *f*로 연주한다. 셈여림의 차이를 나타내어 연주하여 곡의 분위기를 살려준다. <악보 30 참조>

(2) B (42-61마디)

<악보 31> 마디 42-5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42 to 46.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7 to 51. The clarinet part (top staff)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triplets and slurs, marked 'dolce'. The piano part (middle and bottom staves) provides harmonic support with chords and triplets. A '지속저음' (pedal) box is located below the piano part in measure 42, with circles indicating the pedal points for measures 42 through 46.

B 부분은 클라리넷 선율에서 음을 옥타브 도약진행하고 피아노에서 같은 리듬 진행한다. 피아노의 지속저음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화성감을 느낄 수 있다.

클라리넷에서 옥타브 음으로 도약진행을 할 때 어느 한 음이 튀지 않도록 부드럽게 연주한다. 2분음표에 대한 셋잇단음표가 계속 나타나는데 첫 음이 4분침표일 때 너무 길게 쉬거나 짧게 쉬지 않도록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한다. <악보 31 참조>

<악보 32> 마디 54-61

이어지는 연결구에서는 피아노 오른손과 클라리넷이 8분음표 리듬을 주고받는다. 55마디부터 8분음표를 작고 가볍게 연주하며, p와 sf 그리고 f의 셈여림 대비를 잘 살려서 연주한다. 피아노와 8분음표 주고받는 부분을 잘 살려서 연주한다. <악보 32 참조>

(3) A'(주제) (62-118마디)

<악보 33> 마디 62-68, A'

론도 형식으로 인해 다시 주제 A가 나타나는데 a와 b의 음형의 리듬이 변형되어 f로 나타난다.

클라리넷이 이분음표와 온음표의 악센트를 잘 살려서 연주하고, 64~65마디에 나오는 8분음표들을 짧은 텅잉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주한다. <악보 33 참조>

<악보 34> 클라리넷 악보 마디 8-17, 76-84 선율 비교

론도 형식으로 인해 다시 주제 A가 나타나는데, 클라리넷에서 처음에 제시되었던 주제 A 선율이 똑같이 나타난다. <악보 34 참조>

(4) C (119-141마디)

<악보 35> 마디 119-145, C

C 부분에서는 피아노의 왼손에서 D-Db-C-C# 음이 원을 이루는 베이스 진행이 특징이다. 119마디에서 120마디까지, 127마디에서 128마디까지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클라리넷에서 123마디에 p와 127마디에서 pp가 나타나는데 셈여림의 차이를 알 수 있게 연주한다. <악보 35 참조>

(5) B (142-173마디)

<악보 36> 마디 142-152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42 to 148.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49 to 154.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several triplet patterns. The clarinet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p* and a *molto p* marking. The piano part has a *p* marking and a *p leggiero* marking.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앞부분 B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옥타브 도약 리듬 진행이 클라리넷과 피아노에서 나타난다.

클라리넷에서 *p*로 이분음표와 온음표를 연주할 때, 첫 음을 내고 약간 데크레센도를 하며 피아노의 선율이 들릴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다. <악보 36 참조>

<악보 37> 마디 158-173

피아노에서 지속저음을 사용하여 배음의 효과로 풍성한 화성감을 느끼게 해준다. 클라리넷은 164마디, 167마디 그리고 170마디에서 길게 지속하는 음정들은 첫소리를 낸 후, 데크레센도 하여 피아노 소리가 들리도록 연주한다. <악보 37 참조>

(6) A'' (174-206마디)

<악보 38> 마디 174-181, A''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174-181, A''.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74-177,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78-181. The top staff is for the Clarinet (C4), and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f* and *sf*. Two specific musical motifs are highlighted with boxes and labeled 'a' and 'b'. Motif 'a' is a quarter note with an accent (>) on the first staff of measure 174. Motif 'b' is a quarter note with an accent (>) on the first staff of measure 175.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rhythm in the right hand and a more complex bass line in the left hand.

주제 A 피아노에서 나타났던 a와 b음형을 A''에서는 클라리넷에서 음형 a를 피아노에서 음형 b를 *f*로 연주하고 있다. 클라리넷은 이분음표 악센트를 잘 살려서 연주한다. 또한, 8분음표 리듬을 연주할 때에는 피아노의 8분음표 리듬을 잘 듣고 맞추면서 연주해야 한다. <악보 38 참조>

(7) 종결부(207-220마디)

<악보 39> 마디 207-220, 종결부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07-220.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07 to 212,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13 to 220. The top staff is for the clarinet, and the bottom two staves are for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sf*. A box labeled '짧은 카덴자' (short cadenza) is placed above measures 216-218.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종결부에서는 주제 A의 a음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어지는 연결구에서는 주제 A의 b음형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클라리넷의 짧은 카덴자로 끝난다.

악센트와 셈여림 *sf*를 잘 살려서 연주한다. <악보 39 참조>

Ⅲ. 결 론

본 논문은 19세기 음악, 브람스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Clarinet Sonata No.1 in f minor Op.120》에 대해 연구하였다.

19세기 음악은 고전적인 형식과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그너, 리스트, 베를리오즈에 의해 ‘표제음악’, ‘극음악’, ‘교향시’ 같은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다. 그러나, 브람스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고전형식을 기반으로 협주곡, 실내악, 교향곡 등의 곡을 작곡하였다.

브람스는 발전적 변주기법을 통해 곡에 통일감을 주었고, 싱크페이션과 헤미올라 리듬을 사용하여 강박의 위치가 바뀌는 등 박자를 애매하게 하였다. 또한, 독일 민속 음악의 영향으로 3화음이 강조되며 병진행, 반음계적 진행을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곡은 악장마다 주제선율이 반복, 변형되어 계속 나타나 곡의 통일감을 준다. 당김음의 사용으로 곡의 생동감을 주거나, 셋잇단음표, 헤미올라 같은 불규칙한 리듬을 사용하여 마디의 존재를 희미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피아노의 지속적인 페달포인트 사용과 아르페지오의 사용으로 더욱 풍부한 화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곡 전체에 악기와 악기의 모방을 이루는 대위법적 기법이 나타남으로써 피아노가 단순히 반주만의 역할이 아닌 클라리넷과 대등한 관계로 연주된다.

클라리넷 연주자는 서정적인 주제 선율을 연주할 때 프레이즈 연결에 신경써서 연주하며, 빠른 악장에서 16분음표와 잇단음표를 연주할 때는 모든 음이 고르게 들리도록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한다. 4악장에서 8분음표 스타카토가 계속 나타나는 부분은 최대한 가볍고 빠른 텅잉으로 연주한다.

본 연구곡을 연주하기 전에 작곡가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곡의 작곡배경과 작곡기법을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로 나타나는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선율진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김용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라단조 Op.15)의 작품 탄생에 관하여.” 『음악과 민족』4 (1992):182~183.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19, 브람스』. 서울: 음악세계, 2003.

이성일. 『위대한 음악가 평전 요하네스 브람스 그의 생애와 예술』. 서울: 파파게노, 2001.

이성일. 『브람스 평전』. 서울: 풍월당, 2017

홍정수 외. 『두길 서양음악사 제 1권』. 서울: 나남출판사, 1997.

<학위 논문>

김성은.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in F Minor, Op.120, No.1에 관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류예린.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op.120 No.1에 관한 연구 및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송은희. “Johannes Brahms의 Clarinet Sonata op.120, No.1에 관한 연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정진욱. “브람스(J. Brahms)클라리넷 소나타 Op.120 No.2 in E♭ Major의 연구
및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for Performing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No. 1
in f minor Op. 120 by Johannes Brahm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Music
Boo, So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larinet Sonata No. 1 in f minor Op. 120》, and more specifically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techniques to help clarinet players better understand and play the work of Johannes Brahms.

The 19th century music, avert from the classicism focused on the more conventional form, was centered around expressing the emotions and ideas. On the other hand, Brahms was on the side of adhering to the classical form, introducing unity in his works by means of *Entwickelnde Variation*.⁴³⁾ Harmonically, Brahms's works are abundant with 3rd progressions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folk German music, paralleled motions of 3rd and 6th progressions, arpeggiation, and chromatic progressions. In terms of rhythms, the use of syncopations or *Hemiola*⁴⁴⁾ cause ambiguity.

Clarinet Sonata No.1 comprises four movements. The first movement,

43) *Entwickelnde Variation*: Brahms intentionally relocated the formative factors that come at the later part to the former part according to the motives. This has made connections with themes at the later part more tight, strengthening the ties between the respective parts. This motive, introduced by Brahms, first called in the academia as 'Urmotiv' or 'Mottomotiv,' was later named Schoenberg as 'Entwickelnde Variation.'

44) *Hemiola*: A Greek term derived from Latin, 'hemiolios' meaning 'one and a half' to indicate the change from triple time to duple time.

Allegro appassionato, bears the style of a sonata where 3 themes are presented in the exposition. The second movement, Andante un poco Adagio shows ornamented rhythms of demisemiquavers for a lyrical melodic line in a ternary form. In the third movement, Allegretto grazioso, main melody is first presented by the clarinet, followed by the canonic imitation of the piano two measures after. Also, the movement is a bridge with an offbeat octave progression. The final movement, Vivace, is a rondo.

In conclusion, Clarinet Sonata No.1 is a classical work in terms of form and composition, and is characterized with its Romanticism in using lyrical melodies. In addition, an excellent contrapuntal response is prominent in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piano and clarinet.